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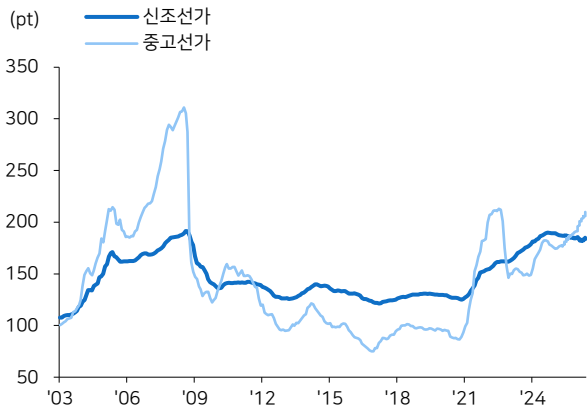


2026. 6. 1 (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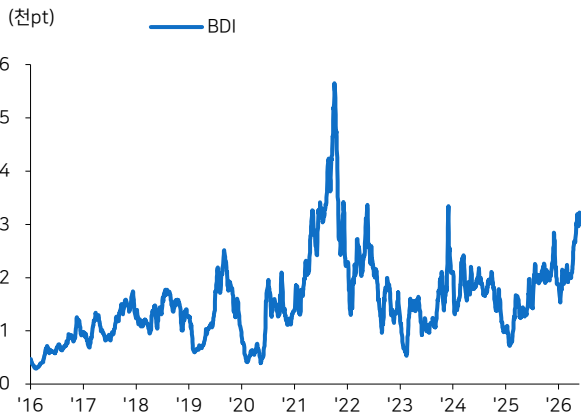
신조선가 185.0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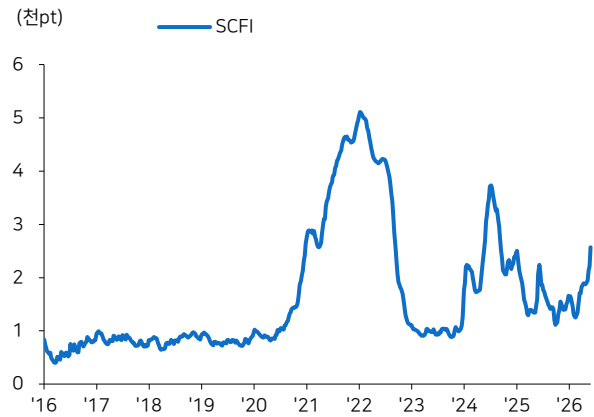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5.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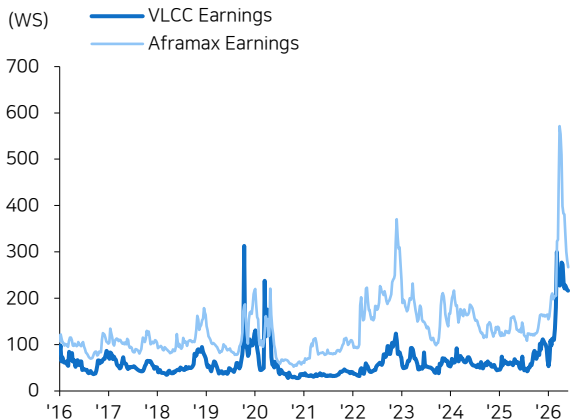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226.0p (+10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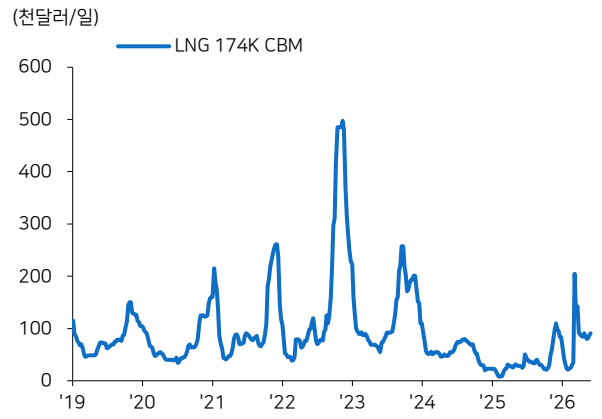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571.7(+353.6 WoW)



VLCC Spot Rate 216.2WS (-2.3p WoW)



LNG Spot 운임 91.0천달러 (+3.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삼성중공업 '12 조원' 美 델핀 FLNG 수주 초읽기...자금 조달 마무리 (더구루) <https://zrr.kr/FRMiMb>

미국 에너지 기업 Delfin Midstream이 추진하는 '델핀 LNG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이 미국수출입은행의 14억 달러 금융 지원을 포함해 약 43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마무리했다고 보도됨. 이번 자금 확보로 최종투자결정(FID)에 탄력이 붙으면서 설비 파열사고로 지연되었던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으며, 연산 350만 톤 규모의 FLNG 1호기 설계·조달·건설·설치(EPCI) 파트너인 삼성중공업의 본계약 체결 및 2029년 인도 목표 건조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이라고 전해짐. 온 삼성중공업은 이번 1호기(약 4조 원 규모)를 시작으로 향후 2·3호기 추가 발주에 대한 우선권도 확보해 총 12조 원 규모의 누적 수주가 기대된다고 알려짐.

BW LPG orders eight VLGC newbuildings worth \$940m (TradeWinds) <https://zrr.kr/SdDwSk>

글로벌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 선사인 BW LPG가 HD현대중공업에 90,000cbm급 파나막스 선족의 VLGC 8척을 총 9억 4,000만 달러(적당 약 1억 1,750만 달러)에 발주했다고 보도됨. 이번 대규모 발주는 미국발 수출 물량 증가와 파나막스 운하 통항 차질, 중동 분쟁에 따른 희망봉 우회 항로 확대에 의해 미국-일본 노선의 VLGC 스폿 운임이 하루 19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강력한 장기 호황 전망을 배경으로 결정되었다고 전해짐. 신조선들은 2029년 초~2030년 2분기 사이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알려짐.

Knutsen ups its LNG newbuilding stash at Hanwha Ocean to nine vessels (TradeWinds) <https://zrr.kr/OT8oMI>

노르웨이 Knutsen OAS Shipping이 한화오션에 초대형 LNG 운반선 1척을 추가 발주하며 해당 야드의 누적 잔고를 9척으로 늘렸다고 보도됨. 이번 계약은 한화오션이 공시한 3,759억 원(약 2억 5,030만 달러) 규모의 유럽 선사 수주 건으로 지난 발주에 딸린 옵션 물량 행사로 추정되며, 선박은 오는 2029년 9월까지 인도될 예정이라고 전해짐. Knutsen OAS Shipping은 통상 장기 용선 계약을 바탕으로 신조를 발주하며 프랑스 세제 혜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입찰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고 알려짐.

HD 현대중공업 노조, 영업익 30% 성과공유 요구...업계 "수용 어려움" (뉴시스) <https://zrr.kr/rRebq0>

HD현대중공업 노사가 6월 2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돌입하는 가운데, 노조가 조선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30% 성과공유'를 요구하면서 이번 교섭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고 보도됨. 노조 측은 임금·복지·노동조건 개선 재원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입장이나, 업계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조선업의 특성상 과도한 요구이며 호황기 속에서도 수익성이 제한적인 만큼 경영 부담을 대폭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해짐. 특히 HD현대중공업의 1분기 영업이익률이 15.3%로 제조업 기준 높은 수준임에도 반도체 등 타 고수익 산업군에 비해서는 낮아, 요구안대로 성과를 공유할 경우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조명된다고 알려짐.

한화오션·LIG D&A, '한수원 50년 파트너' 캐나다 캔두에너지 모기업과 CPSP 협력 TA 체결 (더구루) <https://zrr.kr/MMfsYF>

한화오션이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 및 캐나다 엔지니어링 기업 AtkinsRéalis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협력을 위한 팀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는 지난달 체결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파트너십을 확대한 내용이며, 세 회사는 향후 잠수함 음향 테스트 시설과 유지보수 거점 구축을 비롯해 캐나다 현지 방산 인프라 개발을 공동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짐. AtkinsRéalis는 국내 월성원전에 적용된 중수로 '캔두(CANDU)'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한국과의 오랜 에너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방산 분야에서도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이라고 알려짐.

한국카본, 천궁-II 납품...방산 매출 1 천억 노린다 (한국경제 TV) <https://zrr.kr/muv03x>

한국카본이 주력 사업인 LNG 보냉재 부문의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방산 부품 분야로 영역을 확장한다고 보도됨. 한국카본은 LIGD&A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II'의 미사일 부품과 수직 발사대용 경량·고강도 복합소재 부품을 납품 중이며 차기 모델의 양산 전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짐. 전체 매출의 약 67%를 차지하는 LNG 보냉재 사업 역시 올해 1분기 기준 수주 잔고가 1조 8,000억 원에 달하고 한화오션으로부터 720억 원 규모의 새로운 기술 규격(N096) 선박 보냉재를 추가 수주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으며, 방산 부문 수출 추진 등을 통해 외형 성장을 가속화한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